

# 美 '화웨이 견제' ... 유럽은 '눈치'

### 美요구 들어왔다가 中 비위 건드릴까 우려 주저 英 BT '화웨이 배제' 결정에도 프랑스 등 "환영"

미국이 세계 선두 통신장비 제조업체로 부상한 중국 화웨이 견제에 나섰다. 유럽 국가들은 여기에 동참하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공급하는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사이버 공격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주요 동맹국들에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구매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이 동참해 정부 구매 등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계 통신장비 시장의 주요 고객인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 SCMP는 전했다.

선불리 미국의 요구에 응했다가 중국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경우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유럽으로서는 중국의 투자가 절실하기도 하다.

SCMP는 이러한 유럽 국가의 상황을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영국의 이동통신 사업자 브리티시텔레콤(BT)이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 네트워크 건설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외하기로 했으나, 영국 정부 차원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화웨이 관계자들은 최근 영국 정보당국자들을 만나 영국이 우려하는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다. 독일 정부 내에서도 화웨이

의 5G 구축 입찰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독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한 유럽 이동통신 기업 증언은 "독일의 3대 통신사업자 모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몇달 전까지 안보 문제는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이슈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되레 화웨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중국 후춘화 부총리와 만난 후 "프랑스에 투자하고 프랑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면 환영한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정부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벨상 수상자들 한자리에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맨 앞줄)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佛 충격 사건...4명 사망·11명 부상

### 현지 태생 29살 남성 용의자 경찰과 접전 중 도주

프랑스 동부의 독일 접경지인 스트라스부르 시내 중심부에서 11일(현지시간) 충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AP·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시내 크리스마스 시장 근처에서 발생했다.

용의자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뒤 도주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스트라스부르 태생의 세카르 셰리프(29)로 확인했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충격범이 보안기관에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밝혔고, 스트라스부

르 지방정부는 용의자가 정보기관의 감시복록에 올라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충격 사건이 있기 전 용의자의 집을 급습했으나 당시 용의자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셰리프의 집은 올해 여름에 있었던 강도 사건과의 용의점이 포착돼 수색을 당했다.

사망자 숫자도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와 현장 의료 요원들은 4명이라고 확인했으나 지방정부는 2명이라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dpa 통신에 "테러 동기가 의심된다"며 이번 충격이 테러 사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브렉시트 합의안' 구하기 메이 총리, 유럽 돌며 총력

의회 벽에 가로막힌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구하기 위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유럽 곳곳을 오가며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전날 하원에 출석, 상당한 표차로 부결 가능성이 큰 만큼 이날 예정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원에서 가장 반발이 심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며칠 동안 EU 회원국 정상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승인투표 연기를 결정한 다음

날인 11일 아침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와 조찬을 함께 하며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메이 총리가 뤼테 총리와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전했다. 양측은 브렉시트와 관련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합의했다. 메이 총리는 이어 독일 베를린으로 건너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후에는 다시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메이 총리는 13~14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지도자를 만나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태극서 선보인 한국 전통의상 2018 미스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한 한국 대표 백지현이 10일(현지시간) 태극 춤부리 주파타에서 열린 전통의상 쇼에서 우리 전통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전립선암 의심환자 MRI 진단 먼저"

### 영국 국립임상보건연구원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환자 상당수는 앞으로 고통스러운 외과적 조직검사 대신 MRI(자기공명영상장치)를 통해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은 전립선 의심환자들에 대해 조직검사 대신 먼저 MRI 진단(스캔)을 시행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렸으며 이에 따라 진단을 필요로 하는 약 40% 정도의 환자가 잠재적 고통과 불쾌한 부작용을 수반하는 외과적 조직검사를 피

할 수 있게 됐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MRI 스캔 시험결과 임상적으로 중요한 암의 93%를 발견해 낼 수 있었으며 이는 표준적인 조직검사를 통한 50% 진단율과 비교해보면 높은 것이다.

NICE 지침은 MRI 스캔 결과 5점 만점에 1~2점을 기록한 환자의 경우 전립선 조직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전문가와 환자의 상의해 결정을 내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또 지정

### 북한·중국·이란 등 10개국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난달 28일자로 지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1년 이후 17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리스트에 올랐다.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단순히 그들의 신념에 따라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우려국에 지정된 10개국은 북한, 중국,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도 록 한다. /연합뉴스

## 中, 세계 최대 아치형 철도교량 연결 성공

중국 윈난성에서 4만6,000t에 달하는 세계 최대 아치형 교량 연결에 성공했다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윈난성 바오산시에 설치된 누장쓰센트대교는 총길이 1,024.2m에 폭 24.9m로 설계됐다. 교량은 다리 밑으로 흐르는 폭 230m

의 강을 가로지르고, 바람이 센 고지대에 설치돼 교량 기술 강국인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고난도 공정으로 지어졌다.

윈난의 유명 관광지인 다리와 루이리를 잇는 이 교량이 완성되면 철도로 6시간 걸리던 '다리-루이리' 구간이 4시간이 줄어 2시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 신축 원룸 매매

### 신축 원룸

산정농협 1분(코너)

■ 1층(상가 1칸)  
2층~3층(원룸 10개)  
4층(아파트 35평형) - 고급안집  
주인 주거하면서 - 월 수익 400만

▶ 매가 8억6천(3억, 보3천만)

- 1) 산정동(산정공원앞) 원투룸 15개-상가1칸  
▶ 매가 8억2천만 (보1,800만, 월 540만)
- 2) 월곡동 농협 2분 원투룸 → 15개 (월수익 510만)  
▶ 매가 8억4천만 (보1천500만, 월2억5천)
- 3) 산정동-산정공원 부영아파트 옆  
1층(상가) 원투룸, 10개, 4층(안집)  
▶ 매가 8억7천 (월3억, 월550만)
- 4) 전대 정문앞 (원투룸 18개, 안집1개)  
▶ 매가 12억 (월 750만)

010-6670-9800

## 전원주택지(전문)

- 1) 장성군 동화면 (광주에서 15분)  
토목공사완료, 공공기관, 병원 10분내  
전세대 남향 (1필지 - 약 200평)  
▶ 평당 시세 100만 → 매가 60만
- 2) 장성군 장성읍 (광주에서 20분, 장성호1분)  
전원주택지 최고 부지, 산세좋음  
국도2차선 (10m도로 접) 상가가 가능 (즉시 건축가능)  
① 100평 ▶ 매가 9천만 ② 200평 ▶ 매가 1억7천만
- 3) 장성군 삼계면 (전망좋은, 저수지인근)  
7,260평 ▶ 매가 4억5천만
- 4)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광주에서 15분)  
1,434평 ▶ 매가 7억2천
- 5) 담양군 금성면 (메타세쿼이아 3분) 5)  
6,299평 ▶ 매가 10억
- 6) 광주시 서구 서창동 (전망최고, 건축허가완료)  
197평 ▶ 매가 5억7천
- 7)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토지) 전망좋은, 주택1채  
22,530평 ▶ 매가 5억5천만
- 8) 담양 쪽재골 전원토지 (계획관리) (6m도로접)  
123평 ▶ 매가 평당 150만
- 9) 경기도 평택시 전원주택지 (고덕신도시 5분)  
즉시건축가능 (토목공사 완료)  
200평 ▶ 평당 150만

062-382-5500 010-8677-9830

## 법률경매

◎ 경매교육 ◎  
(기초부터 - 심전 전문)  
★ 9월 개강 선착순 모집 ★

### 일반 상가 매매(수익형오피)

◎ 상무지구 6층상가 겸 주택  
◎ 23평 (주택가능, 방2개)  
보 500만 월 40만  
▶ 매가 8천만

### 경매 (추천 물건)

- 1) 남구 송하동 (5층 상가건물)  
토 138평 건491평, 광주여대 2분  
(교회, 본사건물 추천)  
▶ 감평가 12억 → 최저가 6억8천
- 2) 상무지구 아파트 상가 (1층)  
건 35평 (아파트 496세대)  
(상무지구 메인 도로)  
▶ 감평가 16억3천 → 최저가 9억2천
- 3) 북구 흥동 (상가주택)  
토 38평 건 145평  
광주역 3분, 금남로5가 2분거리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5백
- 4) 북구 삼각동 (근린주택)  
토 116평, 건 332평, 국제고등학교앞  
▶ 감평가 9억9천 → 최저가 9억8천

### 1) 전남화순 전원주택 부지

토 16,982평  
전대산 앞 (광주에서 45분)  
▶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 상가/주택/기타

- 1) 광산구 송정동 (상가주택) (공항1분)  
토 30평 건 65평  
▶ 감평가 2억6천 → 최저가 2억6천
- 2) 상무지구 세영아울렛 (2층) 23평  
▶ 감평가 6억7천 → 최저가 3억7천
- 3) 광산구 우산동 (4층중 2층) 121평  
▶ 감평가 14억 → 최저가 9억9천
- 4) 북구 장동동 (주택)  
토 180평 건 79평  
▶ 감평가 4억6천 → 최저가 3억2천
- 5) 서구 화정동 서부코아  
건물 218평 (노래방 시설 되어있음)  
▶ 감평가 8억4천 → 최저가 3억

경매 컨설팅 함께하실분 모십니다.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 하실분
- 2) 경매 컨설팅 하면서 수익 내실분
-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분
- 4) 가족같이 일하면서 근무 하실분

010-7384-7800 010-6670-9800